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이 폐한다

하나님이 직접 구원자로 오신다

성경을 보면 여러 선지자가 등장한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후세에 전하고자 했던 예언 중에 특별한 것을 찾아보면, 장차 이스라엘(히브리어인데 번역하면 이긴자)이 출현하게 될 텐데 그 이긴자는 구세주로 상징되는 백합화와 같다고 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이슬성령으로 임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나 여호와와 이긴자에게 이슬과 같으리라(호14:5)"라고 표현하였다.

승리제단에서는 이긴자께서 인도하시는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이 이슬은혜를 받게 되면 동시에 백합향취가 진동하는 체험을 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시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예언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데, 과연 성경 이시야서를 자세히 잘 읽어보면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는 십계명을 어겨가면서 하나님 이외의 다른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구원자(구세주)로 직접 오겠다(사43:11, 사60:3)고 약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구세주 이긴자가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곧 이긴자라는 것이다. 이 말을 입증하는 구절을 요한계시록에서 찾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은 "이긴자는 내(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계3:21)"고 했다. 이 구절은 사도 요한에게 계시한 하나님만이 풀어줄 수 있다.

그러하여 이긴자로 오신 하나님께서 풀이하시기를,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는다고 하니 바로 하나님 무릎 위에 앉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는데, 사실은 그런 말이 아니요 이제 혼자 앉을 수밖에 없는 의자에 하나님 앉고 또 이긴자가 앉는 것이 아니고 이긴자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에요. 하나님이 이긴자가 되었고, 인간이 이긴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다.

부분적인 것을 행하는 자들의 역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 어떤 이는 어떤 예언을 하게 하고 또 어떤 이는 저런 예언을 하도록 각



손뼉 치면서 찬송하는 승리제단 식구들에게 이슬은혜가 내리는 장면

자 은혜받은 분량에 따라 소임을 다하게 하였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와서도 "너는 조세 성을 가지고 있으니 복음교회를 세워라. 내가 크게 부흥시키리라. 너희 기독교인들이 손뼉 치면서 찬양하는 전도관 제단의 창문에 돌을 던지면서 이단은 물러가라고 행패를 부렸지만, 이전에 전도관으로 물러갔던 기성교인들이 예수를 치는 영모념에 실망하여 도로 돌아와 복음교회에서 손뼉 치면서 찬양드리게 될 줄이야"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시편 47편에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손바닥을 치면서 찬양하여라."는 말씀대로 행하는 승리제단을 찾아야 비로소 진정한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긴자'라는 용어를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말년에 가서 "이긴자가 곧 만왕의 왕"이라고 밝히고 부분적으로 행하던 자신의 역할을 마친다. 또 어떤 사람은 '새벽별'이라는 용어를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는데, "그 새벽별은 메시아로 오시는 분의 이름"이라고 밝히고 부분적으로 행하던 자신의 역할을 다한다. 또 어떤 사람은 '안식일'이라는 용어를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부분적인 역할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위에 언급된 어떤 사람들의 대부분이 자칭 제립주라고 하고 성경을 기반으로 하기에, 감히 스스로를 가리켜 생미륵불이라든지 정도령이라는 말은 입박으로 내뱉지 못한다. 왜냐하면 자칭 제립주라고 하는 교주가 스스로를 가리켜 생미륵불이라든지 정도령이라고 설교 단상에서 말하게 되면 자신을 따르는 신자들이 전부 자리를 박차고 떠나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칭 제립주라는 교주들은 유불선을 통합하는, 다시 말해서 모든 종교를 하나로 만드는 주인공이 될 수 없기에, 그들이 행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하는 것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토요일, 일요일이 안식일이 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당대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시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이긴자 구세주로 지상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고 있다는 뜻이다.

이긴자 구세주께서는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일요일이 안식일이다'라고 안식일 교인과 기독교인이 서로 싸우는 것은 성경에 너무 무식하기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한다. 히브리서 4장을 읽어보면 안식일에 참여할 자가 있고 안식일에 참여하지 못할 자가 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약에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이

안식일이려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 거처서 살기에 안식일에 참여하지 못할 자가 없게 되어 안식일에 참여하지 못할 자가 있다는 말씀에 저촉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참여하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것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안식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성경 말씀이 짝이 맞고 이치에 맞아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는 고로, 옛세 동안 일을 하시고 이레 되는 날 쉬셨다는 짝의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고 했으니까 하루를 천년으로 치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옛세 동안 일한다는 것이 하루를 천년으로 치니까 육천년 동안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육천년 동안 무슨 일을 하신 것도 전혀 모르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과 안식일 교인들은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산 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창조력, 마귀는 모방력이 있다

성경 출애굽기에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드니까 술객들도 똑같은 뱀을 만들었던 사건에서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시는 자는 창조력이 있고 마귀 신이 함께하시는 자는 모방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승리제단에 계신 구세주 하나님이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방권을 이긴 '이긴자'라는 용어를 영모념과 해와 주님으로부터 최초로 부여받았고 또 이긴자로 인정받은 날에 '감람나무 우리암마'라는 찬송가 가사를 직접 작사하면서 한 번도 수정하는 일이 없이 작성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어머니라고 표현한 것도 전역사의 영모(靈母)라는 칭호에 이어 승리제단에서 제일 먼저 행해진 일이다. 또 "내 어머니 가지신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고 부르는 찬송가도 있다.

하나님이 육천년 만에 대장 마귀를 이기고 이긴자 구세주가 되셨기에, 부분적인 것을 폐하고 온전한 말씀을 하신다. 죽음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의 미완의 종교와 학문이 온전한 말씀에 의해 하나가 된다.*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62>

"예수는 공중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사정도 통달한다고 했는데 예수는 성령이 무엇인지도 몰랐으며 성령으로 잉태되지도 않았던 것이다. 그런고로 성경적인 입장에서 본 예수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시간 시간 세밀하게 논하여 드리는 것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존재가 하늘 꼭대기에 즉 공중에 계신 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신이 사람 몸속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아담과 해와의 몸속에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다고 하였다.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의 몸속에 있다는 뜻이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의인의 몸속에 하나님의 신이 계셨던 것이지만 하늘 꼭대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이기는 삶

말은 인격이다

명심보감 입교편에 보면 공자삼계도(孔子三計圖)에 이르기를, 一生之計(일생지계)는 在於幼(재어유) 하고 一年之計(일년지계)는 在於春(재이춘)하고 一日之計(일일지계)는 在於寅(재어인)이니, 幼而不學(유이불학)하면 老無所知(노무소지)요 春若不耕(춘若不耕)이면 秋無所望(추무소망)이요 寅若不覿(인약불기)면 日無所辦(일무소판)이니라

년의 계획은 인재를 길러내는 것보다 나은 게 없느니라."라고 하였다.

그렇다. 일년의 계획은 농사를 짓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먼저 땅을 갈아 거름을 주어 옥토를 만든 다음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여기에 따뜻한 햇빛과 적당한 온도가 필수 조건이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잡초를 뽑아주는 등의 온갖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밭 흘리지 않고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아무리 정성을 다하여 땅과 시간을 들여 가꾼다고 해도 태풍, 홍수, 병충해 등에 의하여 농사를 망치버리면 이 역시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없다. 아뿔싸 농부는 가을의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고 열심히 땅을 흘린다. 노력하지 않고 땅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은 성공이란 없다. 모든 일의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땅과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그렇지만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 모든 운동 선수가 매일 매일 땅을 흘리며 노력하지만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지만 다 1등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서 사람들은 "내게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기회가 사람에게 자려비리보다 오히려 사람에게 기회를 자려비리고 그것이 기회였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회는 불잡을 수 있는 사람에게, 불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더 자주 오는 법이다.

기회는 늘 우리 곁에 널려 있다. 그렇지만 아무나 기회를 잡지는 못한다.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갈구하는 사람에게만 기회가 그 모습을 드러낸다. 무엇보다 그 기회를 잡으려면 능력과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성공을 원한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라. 가을의 풍성한 수확을 기뻐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그리고 성공할 때까지 중단 없는 노력을 경주하라. 마침내 나에게도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우리는 새해가 시작되면 많은 계획을 세운다. 금연, 다이어트, 운동, 자격증 취득, 외국어 등등. 그런데 계획을 세우기는 하는데 실행으로 옮기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레도 무언가 시작해야 할 것 같은 때이다.

어떤 사람이 신에게 좋은 일이 생기게 해 달라고 빌었다.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좋은 일은 안 생기고 가족들만 모두 죽었다. 그래서 그 남자는 신에게 "너무 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고 한다. 그랬더니 "그럼 너는 무엇을 했느냐?"라고 신이 반문했다고 한다. 좋은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단지 꿈과 소원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자기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추진전국시대 제나라 재상을 지냈던 관중이 말하기를, 一年之計(일년지계)는 莫如樹穀(막여수곡)이요 十年之計(십년지계)는 莫如樹木(막여수목)이요 終身之計(종신지계)는 莫如樹人(막여수인)이라 "일 년의 계획은 곡식을 심는 것보다 좋은 게 없고 십 년의 계획은 나무를 심는 것보다 나은 게 없고 평생 백



구세주 5대 공약

1.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버리겠다.
2. 한국 땅으로 태풍을 못 불어오게 하겠다.
3. 한국에 여름 장마를 못 지게겠다.
4. 한국에 계속해서 풍년들게 하겠다.
5. 한반도에서 전쟁이 못 일어나게 하겠다.